

# 민주, 전월세 임대차 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홍성임 도의원  
전라감영지 현장 점검

### 임대차3법 따른 월세 전환 가속 우려에 보완책 마련 전환율 일정 비율 이하 제한... 월세 못내는 임차인도 보호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와 함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월세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거주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 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보완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비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

월세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2%대에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가 있는 만큼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8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더해 전월세상한제 확대와 일시적 어려움으로 월세를 못내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문 최고위원은 임대차3법의 보완과제를 거론하면서 "전월세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통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2+2년으로 늘어났지만 4년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5%의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의다.

또 한시적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올해 말까지 주택과 상가건물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토록 한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해 놓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이 5일 전라감영지(전라북도청 구청사터)를 방문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의 진행 상황과 구청사 관련 보존물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 회계과 이주철 과장, 청사관리팀 황대연 팀장 등 회계과 및 문화유산과의 관계 공무원들도 참여했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10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감영복원, 실감형 콘텐츠 채워넣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의원 연수에서 술판별이고 女공무원 성추행 의혹까지

### A 진안군의원 '도마위' 올라...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예산결산심의 요령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정연수가 술판으로 변질되고 여성공무원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돼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 간다는 명분하에 지난달 27~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7명, 공무원 4명 등 11명은 부안 해너투기조트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첫날 연수를 마치고 호텔 인근 회관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고 2차로 커피숍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술이 과한 A의원 연수에 참석한 여직원을 뒤에서 밀치면서 일어났다. 그 광경은 의원들과 남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안군의회는 1박2일 연수에서 627만원 군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일 일정으로 의원 7명, 공무원 4명 등 11명은 부안 해너투기조트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필려야 함에도 분분은 망각한 채 술이나 마시고 여직원 성추행이나 하는 의회는 군민 앞에 반성하고 의원은 퇴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군민들은 1기에서 8기까지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8기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지만 여성공무원 추행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가 이번 일이 발생하자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민주 이원택 의원,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간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 등과

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법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국회의원들,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 이상직 의원,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등 10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전주 서부권 현안사업인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억원과 '효자동 양지품공원 바닥부수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영장 규모 확대가 가능해진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2018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같은 해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번 특교세는 지역 시도원과 지자체 관계자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한병도 의원,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등 18억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5일 익산 지역 현안을 해결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사업 7억원 ▲보석박물관 전시실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 7억원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익산 종합운동장 내 건립될 실내야구연습장은 생활 야구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존 시설과 결합해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숙원사업 등에 20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김제 10억/부안 10억)을 확보, 김제·부안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5일 김제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6억, 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1억, 부안군 스포츠평크 궁도장(심고정) 기능보강사업 5억, 부안상설시장 오수처리시설 5억 등 총 20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추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이용호 의원, 장애인 문화시설 정비 등 11억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측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복지, 재난대비 및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지역 예산확보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복지 시설 정비 5억 원 ▲인원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4억 원 ▲황산정 배수로 정비 및 시설 개보수 2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교세는 각 지자체, 행안부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사회적약자 복지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술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